

전남도의의회 개원...이용재 의장 선출

부의장에 김한중·이민준의원 10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

제11대 전남도의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3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재(55·광양1) 의원이 선출됐다. 전반기 원구성 결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10자리 모두 민주당 일색으로 꾸려졌다.

전남도의의회는 10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원구성 선거에는 재직의원 58명 모두가 참석, 3선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의원은 같은 당 김기태(64·순천1·재선) 의원과 3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30표를 획득, 28표를 얻은 김 의원



이용재 의장 김한중 부의장 이민준 부의장

을 2표차로 따돌리고 의사봉을 치자했다. 1차 투표에서는 이 의원 29표, 김 의원 28표, 사순문 의원 1표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어 2차 투표에 들어갔고, 2차 투표에서는 이 의원과 김 의원 모두 29표씩을 얻어 결선 투표에 들어갔다.

또 부의장 선거에서는 제1부의장에 김한중(64·장성2·3선) 의원, 제2부의장에 이민준(54·나주1·3선) 의원이 각각 뽑혔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운영위원장 서동욱(49·순천3·3선)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이혜자(여·62·무안1·재선) 의원,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정경선(53·목포5·초선) 의원, 경제관광문화위원장 김태균(55·광

양2·재선)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임영수(65·보성1·재선) 의원,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김성일(52·해남1·재선) 의원, 교육위원장 우승희(45·영암1·재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용재 신임 의장은 "의원들과 함께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열린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의원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 시작

남도관광마케팅센터·전자도서관 등 사업 발주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다. 광주시는 오는 9월 완료될 예정인 전일빌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는 별도로 전일빌딩 2~4층에 들어설 남도관광홍보마케팅센터, 전자도서관 등의 공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최근 발주했다.

10일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가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남도관광홍보마케팅센터 및 전자도서관) 공간구축 제작설치를 위해 기초금액 62억4000만원에 '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남도관광홍보마케팅센터에 16억원, 전자도서관에 46억4000만원이 배정됐으며 설계와 리모델링공사를 일괄해 입찰에 부쳤다.

전일빌딩은 광주일보의 옛 사옥으로, 지난 2016년 12월 13일 이 건물 10층에서 층간 흔적이 발견되면서 시가 2017년 8월 15일 28번째 5·18 사적지로 지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경매를 통해 전일빌딩 건물과 토지를 138억 1165만원에 매입한 광주도시공사로부터 2022년~2027년까지 6년간 분할 납부 방식으로 172억원(이자 13억원 추정)에 매입해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에픽빌딩 복합문화센터(남도관광홍보마케팅센터 및 전자도서관) 공간구축 제작설치를 위해 기초금액 62억4000만원에 '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남도관광홍보마케팅센터, 청년 및 NGO 센터 등이 들어선다. 5~7층은 'ICT 입주기업 공간', 8~9층은 '투자진흥지구 업무지원시설'로 쓰이며, 10층과 옥상은 5·18민주화운동성사관, 5·18관련 자료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세계청년축제' 5·18민주광장 일대서 13일 열려

15일까지 3일간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2018 세계청년축제'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세계청년축제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문화행사로 시작한 청년들의 주도적인 축제 기획과 현장 실행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성장형 축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4회 세계청년축제는 '청년은 하나다'라는 주제로 현재 각자의 방식대로 치열하게, 혹은 즐겁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공감하며 응원하는 장을 마련했다. 공식·기획·연계·부대행사 4개 분야로 나눠 총 21개의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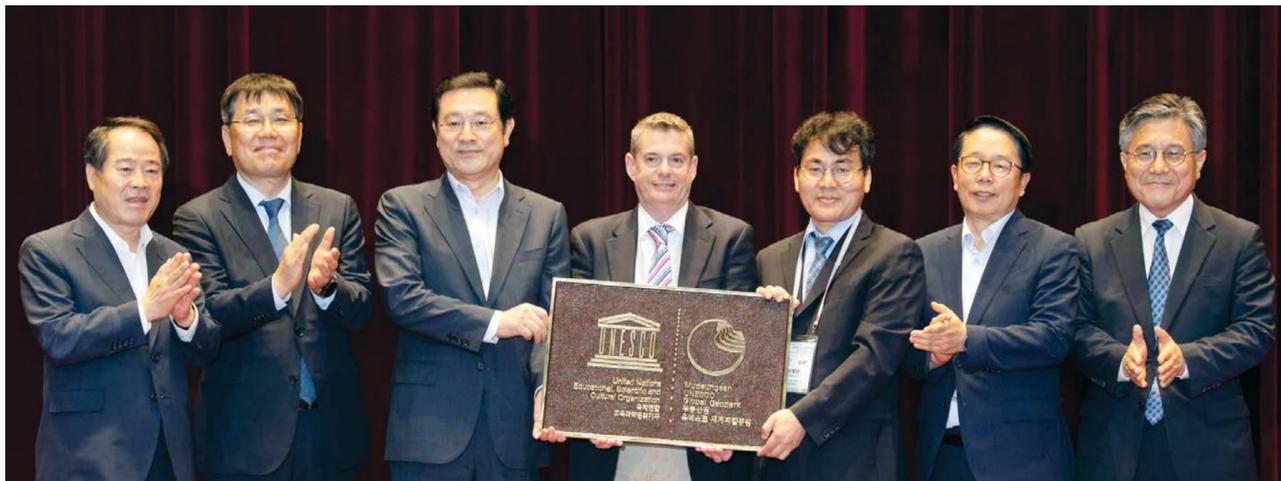
5·18민주광장 주무대에서는 이 시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선보이는 개막퍼포먼스 '청년, 100인의 삶을 노래하다'를 시작으로, 방송인 유명재씨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발칙한 청춘', 전국대학생패션연합회 'OFF'와 함께하는 런웨이 패션쇼, 전라도·충청도 대학생들의 끼 공연 '상상정춘추' 등이 개최된다.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유일한 여름축제인 만큼 기존 3회까지와는 달리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콘텐츠를 마련했다. DJ원투와 청년들의 열기를 더해지는 도심 속에서 즐기는 이색 POOL 파티 물놀이와 축제 기간 시원하게 발발하며 놀 수 있도록 간이수영장도 준비한다.

축제 일정과 행사참여 안내는 청년축제 사이트(blog.naver.com/wearethethre)를 참조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권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기념 비전선포식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기념 비전선포식이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 이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 패트릭 맥키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사무총장, 이병헌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의장단 감투 싸움에 날 새는 광주시의회

이틀째 파행...의장·부의장·위원장 선임 놓고 계파 다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간 '자리다툼'으로 광주시의회가 이틀째 파행을 겪으면서 시의원들의 자격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개원과 함께 의장·부의장·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2개 그룹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들의 계파 다툼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 시의원 2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최했지만,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반재신 의원이 의장 선출 안전만 상징하고 황현택 의원의 요청으로 정회를 선포했다. 발언을 요청한 황 의원은 "8대 원 구성과 관련해

합의되지 않았다"며 "잠시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고 반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즉시 정회를 선언했다. 황 의원 발언에 앞서 조석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장 직무 대행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고 의장 선출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의장 직무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다음 연정자가 의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밝혀 의장 직무대행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의장 선거에 단독후

보로 나선 김동찬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 그룹과, 후보를 사퇴하고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의장 선출 과정을 이끌어야 할 반재신 의원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나뉘며 부의장과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반재신 의원 측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김동찬 의원 측에 요구했고, 김 의원 측은 부의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 일부 초선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부의장과 위원장 직을 요구해 "감투에만 욕심을 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의장단 선출 파행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도 차질이 예상되는 등 8대

의회 일정이 줄줄이 어긋나게 됐다.

시의원들의 불협사나운 자리다툼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광주 지역 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독점한 8대 광주시의회가 자리싸움으로 날이 새다"며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구태로, 4년간 이런 의원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 지 자괴감이 든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시민의 삶은 팍팍하고, 청년의 앞날은 암울하다. 지금은 자리를 놓고 싸울 때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오광택 기자 kroh@kwangju.co.kr

북구 오룡동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 14일 개장

도심 피서지로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모은 '광주시민의 숲' 내 물놀이장이 14일 개장한다.

광주시는 10일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북구 오룡동 '광주시민의 숲' 내 물놀이장을 14일 오전 10시부터 무료 개장한다"고 밝혔다.

물놀이장은 8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대청소와 시설물 점검을 위해 정기 휴일로 정하고,

태풍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안전을 위해 휴장한다. 광주시민의숲 물놀이장은 1000㎡ 규모로, 평균 수심은 20cm다. 주요 물놀이시설로는 물고래와 해적선, 워터톱 등 6종이 있으며, 모든 물놀이 시설은 안전검사서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물놀이장에 공급되는 물은 100% 수돗물이고, 사용한 물은 재사용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물로 교체된다. 또한 15일마다 수질검사를 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옛. 밝은광주안과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신세계안과

SHINSEGAE

스마일 / 라식 / 라섹
노안 / 백내장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